

1. 발간 배경

1967년 아가페의 전신인 와싱턴한인교회의 첫 소식지, “화부한인교회소식”이 청년 신앙회의 평신도 자원사역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1965년부터 교포 수가 늘기 시작, 교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와싱턴한인교회도 조직과 운영의 체계가 잡히고 보강되기 시작하였다.

어려웠던 초창기의 교회활동과 사역현황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몇몇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하여 교회지 편집과 출판사역이 시작되었다.

1969년에는 “화부한인교회소식”을 “아가페”라고 명명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

2. 목적

와싱턴한인교회의 교회지로서 교회의 역사를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교회 소식을 알리며, 믿음의 글을 실어 간증과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보다 힘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건설적인 격려와 사랑을 담아 “아가페” 교회지 편집과 출판사역을 감당한다. 출판횟수는 일 년에 4번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역할/주요 업무

- 1) 교회 내외에서 진행되는 행정 및 선교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역의 활동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출판 계획을 수립한다.
- 2) 출판계획에 따라 사역의 진행 현황을 기록하여 목차 및 순서를 작성하고 출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편집위원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평신도들에게 의뢰하여 원고를 모집한다.
- 3) 사역행사의 사진들을 분야별로 모집하여 화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아가페 편집에 포함한다.
- 4) 모집된 원고와 자료를 필요에 따라 교정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 아가페 출판에 필요한 각 페이지와 표지를 디자인하여 출판/프린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5) 아가페에 실리는 원고의 내용은 와싱턴한인교회와 관련된 사역과 행사에 한한다.

4. 편집/교정

와싱턴한인교회 교회지로서 교인들의 믿음의 글을 실어 간증과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다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건설적인 격려와 신앙의 글을 환영한다. 다만, 개인 비방이나 광고성 내용은 제외된다. 아가페 편집위원회에

제출된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정과 보완, 첨부와 삭제의 과정을 거치며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최종 결정은 편집 위원회에 속한다.

5. 조직/임원

편집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와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임원은 와싱턴한인교회의 소속교인으로 한다. 아가페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임원은 평신도사역개발원의 지침에 의해 자원사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1) 발행인: 와싱턴한인교회 담임목사
- 2) 편집고문 (1명)
- 3) 편집인 (1명)
- 4) 편집위원 (약간명)
- 5) 사진 제작 및 편집 (약간명)

아가페 편집사역에 관심있는 교인은 아가페 편집위원회에 연락하여 사역에 협조하며 참여할 수 있다.